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11: 자신의 구원 확신

『신앙감정론』 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열한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52~270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이 장에서 양쪽 오해를 모두 막습니다. 먼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착각에 빠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성경의 성도들은 대부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세우실 때 신자가 확신하도록 일부러 준비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편으로 돌아섭니다. 확신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것만으로는 참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위선자의 확신은 오히려 성도의 확신보다 더 단단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상의 계시'에 기댄 '복음적 위선자'가 그렇습니다. 끝으로 에드워즈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는 설교가 잘못 쓰이면 위선자를 길러 낸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육적인 상태에서 생기는 의심은 오히려 마땅한 것입니다.

🪪 표지 카드

표지 11(소극): 자기 체험이 하나님께로 왔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몹시 확신한다 해서, 그 감정이 참되다는 표지도 거짓되다는 표지도 아니다.

확신은 성경이 성도에게 약속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선자는 무지와 자기 아첨, 사탄의 속임 때문에 성도보다 더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크기'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없습니다.

📜 절별 정리

📜 1. 확신은 착각인가? 성경 속 성도들은 확신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자기 구원을 의심 없이 확신하면 곧 망상이라고 봅니다. 순교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완전한 확신은 교회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생각이 두 가지와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교황주의(로마 가톨릭)에 맞서 개혁교회의 뛰어난 저자들이 지켜 온 교리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성경 속 성도들에게 확신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욥은 자기 구속자를 확신했고,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방패”라고 불렀으며,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고별 강화(요한복음 14~16장, 죽음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도 그들이 영광에 함께할 것을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편지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장차 받을 상을 확신 있게 말합니다.

1. 확신=망상이라는 주장은 개혁교회 교리와 어긋난다
2. 성경의 성도들에게 확신은 보편적이었다
3.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4. 확신의 목적은 '충만한 기쁨'이다
5. 바울은 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 말했다

> **욥기 19:25-27**
> 고난 속 욥도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심을 안다”고 확신했다
>
>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 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히스기야가 자기 진실함을 하나님께 확신 있게 호소한다

>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요한복음 15:11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33

고별 강화의 결론: 그리스도 안의 평안과 담대함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7:13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기쁨의 충만이 목적이다 (번역본에는 15:11로 표기됨. 기도 본문은 17장)

>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갈라디아서 2:20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울의 개인적 확신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1:12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맡긴 것을 지키실 것을 확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4:7-8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예비되었다는 확신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2. 은혜 언약은 확신을 위해 설계되었다

에드워즈는 은혜 언약 자체가 확신을 겨냥한다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준비되고 인 쳐졌습니다. 약속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많은 보증이 붙었으며,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약속의 상속자들이 의심 없이 소망하고 크게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아무리 확실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줄 모르면 위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확신은 특별한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모르는 것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신자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거듭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위선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1. 언약·약속·맹세의 목적은 신자의 확신이다
2. '내게 주신 약속'임을 모르면 위로도 없다
3. 확신은 모든 신자에게 명령된 것이다
4. 모르는 상태는 책망받을 나태함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는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는 것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9

그리스도는 양심을 온전케 하신다. 죄책에서 놓였다는 확신이 없으면 헛되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베드로후서 1:5-8

모든 신자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길이 제시된다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고린도후서 13:5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는 것은 책망거리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9:26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나태다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3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3:14

형제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 (2:5, 3:19, 3:24, 4:13, 5:2, 5:19도 같은 맥락)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 3. 그러나 큰 확신도 증거가 못 된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제 에드워즈는 방향을 바꿉니다. 확신이 넘친다고 해서 성도라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아버지, 나의 달콤한 구세주”라며 아주 친밀하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을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웃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는 말만 나와도 정죄합니다. 이런 고자세의 격렬한 확신은 많은 이에게 화려하고 감동적으로 보이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을 닮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장 뛰어난 성도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남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멂을 지적하시자 비웃었습니다. 참된 확신은 오히려 세리를 닮습니다. 세리는 자기 무가치함을 알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그리스도를 겸손히 신뢰했습니다.

3. 화려하고 감동적인 확신은 바리새인을 닮았다

4. 참 확신은 자기 신뢰를 버린 세리를 닮았다

> **요한복음 9:40**
> “우리도 소경인가” 지적을 경멸하는 바리새인의 확신
>
>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 **누가복음 18:11**
> (에드워즈가 장절 없이 묘사) 남과 구별됨을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
>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 **누가복음 18:13**
> (장절 없이 묘사) 멀리 서서 가슴 치는 세리. 참 확신의 모습
>
>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 4. 위선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네 가지 이유

에드워즈는 먼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무지와 속임수, 자기 아첨과 자신감에 다스려집니다. 거기에 거짓된 고조된 감정이 더해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기분 좋은 상상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확신이 산처럼 높고 폭풍처럼 격렬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여러 이유로 자기 소망을 점검하게 되는데, 위선자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위선자는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속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위로는 사람을 더 깨어 있게 하지만, 거짓 위로는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위선자는 자기 눈멂과 마음의 거짓됨을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며 바로 그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넷째, 위선자는 자기 부패를 보지 못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위선자보다 열 배는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같은 마음에 은혜가 머문다는 것 자체를 신비롭게 여깁니다.

1. 자연인의 마음은 자기 아첨에 다스려진다
2. 위선자는 속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3. 자기 눈멂과 거짓된 마음을 모른다
4. 마귀는 위선자의 소망을 공격하지 않는다
5. 성도는 열 배 더 자기 부패를 본다

> **고린도후서 11:14**
> (장절 없이 암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거짓 위로를 준다
>
>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 **마태복음 4:3**
> (장절 없이 암시) 사탄은 그리스도의 아들 됨을 공격했다. 참 소망이 공격받는다
>
>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마태복음 10:24-25**
> (장절 없이 암시) 제자는 선생보다 크지 않다. 성도도 같은 공격을 받는다
>
>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마귀는 참된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은 공격하지만 위선자들에게 있는 소망은 공격하지 않는다.”

📜 5. 두 종류의 위선자와 '가상의 계시'

위선자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성과 외적 신앙에 속는 부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칭의 교리에서 알미니안주의자, 곧 인간의 행위와 협력을 구원 조건에 넣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된 깨달음과 고상한 체험에 속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행위를 깎아내리고 값없는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깨달음과 겸비함을 자기 의로 삼고 자신을 하늘까지 높입니다. 셰퍼드 목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들을 '율법적 위선자'와 '복음적 위선자'로 부르며, 후자가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복음적 위선자의 확신이 훨씬 강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사람이 속지 않은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들 확신의 주된 근거는 최근 많은 사람이 받았다는 '자극'과 '가상의 계시'입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합니다. 내용은 “네 죄가 사해졌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부르지만, 에드워즈는 성령의 증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고 하며 뒤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일을 간절히 원하던 사람들이 '반드시 얻는다'는 감동을 받고 우스울 만큼 확신하던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확신은 자신이 왕이라고 믿는 미친 사람의 확신과 같습니다. 참된 확신은 은혜가 살아 있을 때만 유지되고, 은혜가 약해지면 흔들립니다. 반면 위선자의 확신은 죄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악하게 살면서도 담대히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속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1. 율법적 위선자는 도덕성에, 복음적 위선자는 체험에 속는다
2. 복음적 위선자는 은혜를 말하며 깨달음을 의로 삼는다
3. 자극과 가상의 계시를 '성령의 증거'로 착각한다
4. 참 확신은 살아 있는 은혜와 함께 오르내린다
5. 죄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기만의 증거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없음)**
> 에드워즈는 경험과 관찰로 논증한다. 성령의 증거에 대한 성경적 논의는 “뒤에서” 다루겠다고 미룬다

에드워즈는 자주 설교되는 몇 가지 가르침을 더 조심스럽게, 설명을 붙여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영광을 돌리라”,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선한 삶을 믿음의 토대로 삼지 말라” 같은 말들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면 탁월한 가르침이지만, 오해하면 위선자의 거짓 확신을 키웁니다. 성경에서 '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누리지 못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적 빛과 체험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도 굳게 믿으라.” 에드워즈는 이것이 반성경적이고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참 믿음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친 만큼 작동합니다. 빛 없는 믿음은 빛의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의 뻔뻔한 주제넘음입니다.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돌이키지 않은 채 “소망을 자신 있게 붙들라”고 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되 은혜로운 믿음으로는 믿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1. '믿음으로 산다'는 영원한 것에 다스림받는 삶이다
2. 빛 없이 확신하라는 말은 반성경적이다
3.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만큼 작동한다
4.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
5. 죽은 자의 믿음은 '돌이킴'이어야 한다

> **고린도후서 5:7**
> 믿음과 봄의 대조.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삶을 뜻한다
>
>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 **고린도후서 4:18**
>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함
>
>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8:24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한복음 20:29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육안이 아닌 계시를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40

영생 얻는 믿음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3:18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믿음이 작동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4:4, 4:6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고린도후서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 7. 어둠 속 신뢰의 참뜻, 그리고 믿음은 '나는 구원받았다'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은 참입니다. 다만 그 '어둠'은 섭리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적이 둘러싸고, 약속이 이루어질 길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소망을 거슬러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욥, 시편 기자, 예레미야, 다니엘과 세 친구, 바울이 그렇게 했고, 히브리서 11장이 그 예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영적 시각 없이 죽은 육적 생활을 하며 '신뢰'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빛이 한 길로 막혀도 다른 길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신실하심, 주권과 거룩하심을 보고 조용히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난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좋은 상태에 있다고 믿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 자기 상태를 의심하는 것을 불신앙의 죄로 칩니다. 가장 악하게 살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에드워즈는 묻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바리새인이야말로 믿음이 탁월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는' 수단이지, '이미 들어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의는 결국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고 맙니다.

1. 어둠 속 신뢰는 섭리가 어두울 때의 신뢰다
2. 영적 빛 없이 사는 '신뢰'와는 전혀 다르다
3. 사랑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성품은 보일 수 있다
4.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8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아브라함. 약속을 붙든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13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멀리서 보고 믿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17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섭리가 약속과 충돌해 보일 때의 신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27

보이지 않는 이를 보는 것같이 참은 모세. 믿음에도 '봄'이 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로마서 4:18

(장절 없이 '소망을 거슬러 소망'으로 암시) 어둠 속 참 신뢰의 공식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31-32

(장절 없이 암시) 확신 넘치던 일부 바리새인은 성령 훼방죄를 지었다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 8. 의심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과 두려움의 저울, 그리고 체험의 바른 자리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에서 오는 의심입니다. 은혜의 증거가 있는데도 자기가 너무 무가치하다며 의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괴수에게도 충분하신 그리스도와 넘치는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 때문에 의심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의심은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명 없는 육적 삶을 살며 탐욕의 지배를 받을 때 생기는 의심은 다릅니다. 그때 그가 책망받을 것은 육적인 삶이지 의심이 아닙니다. 촛불이 꺼진 방에 빛이 없고 해가 지면 햇빛이 없듯, 그 상태에서 확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과거의 체험을 아무리 되새겨도 확신을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두려움을 저울의 두 접시처럼 놓으셨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두려움이 일어나 사람을 죄에서 멈추게 하고 깨우십니다. 사랑이 살아나면 더 높은 원리가 일하므로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사랑은 양자의 영, 곧 자녀 됨의 원리이고, 두려움은 종 됨의 원리입니다. 다만 우울증, 교리적 무지, 잘못된 가르침, 특정한 유혹 같은 우발적 요인이 끼면 이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에게 “의심하면 불신앙의 죄”라며 확신을 붙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뻔뻔한 위선자를 길러 냈고, 그 해악은 막대했습니다. 끝으로 에드워즈는 한 가지를 구분합니다. 은혜로운 체험을 은혜의 '증거'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자기 '의'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체험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체험을 의지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공연한 부도덕보다 더 가증합니다.

1. 은혜의 증거가 있는데 하는 의심은 불신이다
2. 육적인 상태의 의심은 오히려 마땅하다
3. 사랑과 두려움은 저울의 두 접시다
4. 의심을 막아 주는 성구는 위선자를 길러다

요한일서 4:18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사랑과 두려움의 저울 원리

>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8:15

(장절 없이 '양자'와 '종 됨'으로 암시) 사랑은 자녀의 영, 두려움은 종의 영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디모데전서 1:15

(장절 없이 '괴수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충분성'으로 암시) 무가치함 때문의 의심은 불신이다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랑은 양자 삼음의 법칙 또는 자녀 됨의 원리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강하게 끌리거나 싫어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참 신앙이 이 감정에 크게 자리한다고 봅니다.

확신(assurance)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부러 속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신자라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신앙고백자를 넓게 가리킵니다.

율법적 위선자
도덕성과 외적 신앙생활을 근거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복음적 위선자
값없는 은혜를 말하지만 자기 깨달음과 체험을 자기 의로 삼는 사람입니다. 셰퍼드 목사의 용어입니다.

자연인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극·가상의 계시(impulses)
마음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나 구절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개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영적 빛·영적 시각
성령이 마음을 비추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 종의 영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자녀의 마음과, 두려움에 묶인 종의 마음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구원 확신은 성경이 약속하고 명령하는 것이므로, 확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짜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위선자의 확신은 성도의 확신보다 더 강할 수 있으므로, 확신의 크기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 참 믿음은 영적 빛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는 만큼 신뢰하는 것이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 사랑이 식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니, 육적인 상태에서 의심을 억누르게 하는 가르침은 위선자를 기른다.
- 체험은 은혜의 증거로 살필 수 있으나, 자기 의로 삼는 순간 그리스도 대신 체험을 의지하게 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0편 · 나는 확신하고 남들도 인정하는데 · 표지 11·12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